

부산 아미동 '피란민 주거지' 등록문화재 등록

부산시 첫번째 공식 등록문화재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 긴박함 반영 일본인 묘지위에 임시건축물 지어 번·전용 과정없이 현재까지 주거

부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가 5일 부산시의 첫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등록은 지난해 9월 관할 서구청이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를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시 문화재

위원회(기념물분과) 등록심의를 통과했고, 오늘 등록 고시를 통해 부산시의 첫번째 등록문화재로 공식 등록됐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는 서구 아미동2가 229-2 외 1필지의 토지와 상부 시설물들을 포함하는 문화재로,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밀집했던 부산의 긴박함을 반영하듯 일본인 묘지 위에 목구조물의 임시건축물을 지어 번·전용 과정 없이 오늘날까지 주거지로 이용되어왔다.

'산 자의 주택'과 '죽은 자의 묘지'가 동거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의 생활상과 주거의 변화양상이 잘 보

존된 도시공간으로 부산 역사에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특히 상부 '비석주택'은 생존을 위해 일본인 공동묘지의 석축과 묘지석 조묘책 위에 판자, 신문지, 원조물품 포장지, 루핑지 등을 사용해 긴급히 지은 판잣집으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포용의 가치와 전쟁극복의 인류애를 간직한 생활 유산이자, 피란민의 긴박했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구조물이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가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비석마을 일원은 향후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긴박했던 삶을 보여주는 생활 유산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가 부산시의 첫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서구청은 현존 피란민 주거지 내 건조물들을 한국전쟁 피란민들과 산업화시기 도시 서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구멍가게, 이발소 등 전시공간(피란생활박물관)으로 조성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생활모습이 잘 드러나는 역사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최계숙 영양 여성단체협의회장 인재장학회에 200만원 기탁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계숙씨가 5일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최계숙 회장은 영양군의 인재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일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기탁취지를 전했다. 재단법인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조성 누계액은 62억원이며 이 기금에서 파생된 이자수익과 각계각층에서 기부한 장학기탁금을 재원으로 각종 장학사업 및 우수인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양산 야외스케이트장서 겨울 스포츠 만끽해요"

양산종합운동장·웅상 명동공원서 내달 4일까지, 1일 총 4~5회 운영

양산시는 겨울 레포츠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야외스케이트장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난 3일 양산종합운동장과 웅상 명동공원내 동시 개장하여 오는 2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스케이트장 1회 수용인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운영계획을 축소하여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키로 했다.

야외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양산 야외 스케이트장 모습. /양산시

오후 5시 30분까지 1회당 1시간 30분 운영 후 30분 동안 정빙 및 방역을 실시하여 1일 총 4회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시간에 1회 더 운

영하여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한 운영계획에 의거해 1회 수용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18세이하 제외)을 의무화하며, 방역패스 확인, 체온측정, QR체크인, 손소독 실시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마스크와 장갑은 시설 이용 내내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운영되었던 양산 야외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으나, 올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방역패스 적용)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1회 90분 기준으로 장비대여료를 포함해 2,000원이며 관련법에 따른 할인 대상자는 50% 감면된다.

/양산(경남)=장병호 기자

진주시,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9농가에 1억9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2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하며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

영암군, 군민 교통안전 확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영암군은 관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어 도비 및 군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통행량이 많은 18개소를 선정했다. 주로 야간 및 안개, 우천 등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짧을 때 명확한 횡단보도 인지 효과를 줄 수 있고, 도시경관 효과 또한 뛰어나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보성군, 출산장려 조례 개정 양육지원금 등 지원범위 확대

보성군은 2022년도 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 응원(바우처카드)이 출산가구에 지원된다. 기타 지원사업은 보성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원' 자료 선봬

광주·인천·전북 3개 교육청 공동 자료집 3종개발, 고등학교에 보급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3종을 개발해 관내 전체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3개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들과 해당과목별 교원들이 공동으로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I, 독서, 영어 독해와 작문 등 총 3개 과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개발했다.

특히 자료집은 수학 I, 독서, 영어 독해와 작문을 지도할 때 과목별로 학습 취득을 위한 이수, 미이수의 기준인 학업 성취율 40%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담고 있다. 또, 학업 성취율 40%를 달성하지 못해 미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예방 지도하거나 실제 미이수 학생이 발생할 때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도 담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창원시 신촌광장 일원 가로환경 개선 추진

창원시는 신촌광장 일원에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을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성산구 신촌광장에서부터 상복사거리 4.6km에 이르는 공단로 일원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원

광주 동구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발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3~4일 이틀간 2022년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인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시비 23억여 원을

이며, 국비는 9.6억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상징성 강화, 밝은 공단로, 민간참여 유도라는 3가지 큰 방향성 아래 거리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1월 완료했다. 시는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기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기업체 간담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등 활력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창원(경남)=장병호 기자

/광주=김태수 기자